

## 음악인 성공조건 재능이 아닌 '열정'

일반적으로 음악 마니아들은 일정한 진화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테면 국악 마니아들의 진화 패턴은 판소리→산조→정악 순이라고 한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계의 민속음악>의 저자 박창호(56·민속음악 및 고음악 평론가)는 자신의 진화 패턴이 그랬고, 대부분의 음악인들을 연구한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박씨는 판소리가 첫 대면에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인상파라면, 산조는 정갈하지만 화려한 칸딘스키의 추상화이고, 정악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직선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씨는 음악도 깊이 들어갈수록 익숙한 것 대신 낯선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진화의 전 단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미료가 덜 들어간 음식을 찾는 이치와 같다고 주장한다.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민속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 민속음악에는 각 민족이 이어온 역사와 삶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 인생 녹아있는 민속음악

이 책은 켈트·노르만, 슬라브, 라틴, 비잔틴, 마그레브·터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힌두스탄, 라미야나, 인도차이나, 극동아시아, 서인도제도, 태평양제도 등 영미권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을 다루고 있다.

또 각 문화권 음악을 대표하는 음반 소개와 함께 켈트족 백파이프, 비잔틴 문명 주르나, 중앙아시아 입풍금 등 민속악기에 대한 옛 그림이나 조각, 사진, 화보도 실고 있다.

특히 인도의 라가, 이슬람의 마잠, 이란의 라디프 등 대표적 세계민속음악에 대한 설명도 다루고 있다.

라가 음악은 힌두교의 최고 경전인 '베다'를 낭송하면서 시작됐다. 라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정열, 색깔, 애착 나아가 인간의 마음을 채색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렘베티카는 고대 그리스의 민속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기반 위에 다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음악요소 가미됐다고 한다.

저자인 박씨는 33살에 늦깎이로 서강대 철학과에 들어가 클래식 동호회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이런 인연은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던 박씨에게 음반해설 요청이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 때문에 박씨는 프랑스 도서관이나 고문서 보관소를 뒤졌고, 희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니 자연스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세계의...>에는 그렇게 모은 자료가 담겨 있다.



세계의 민속음악  
박창호 지음  
현암사 | 1만6500원

김원우 기자



열정  
서신혜 지음  
현암사 | 8500원

조선 제일의 명창으로 알려져 있는 석계는 원래 여종이었다. 거기에서 열나나 못생겼던지 '얼굴은 늙은 원숭이 같고 눈은 대추씨 같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을 정도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석계는 나물 캐러 산에 가면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바구니에 자갈 하나씩을 집어넣고 바구니가 가득 차면 노래 한 곡을 마칠 때마다 자갈 하나씩을 꺼내면서 노래만 부르다 날이 저물면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래서 매일 흠뻑 땀을 맞고 미쳤다고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도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석계를 내치지 않고 노래 교육을 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훗날 석계는 조선 최고의 명창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책 <열정>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였던 옛 음악인들의 이야기다.

석계를 비롯해 박연, 우육, 율령사 등 명창, 명연주자들을 비롯 화가, 서예가, 문장가 등 9명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이들은 한 시대에 성공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에는 역사계 운이 좋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안목 있는 사람을 후원자로

만났고, 어떤 이는 실력 좋은 스승을 만나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이 중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이런 이유만으로 제 이름을 세상에 드날릴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성공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천천히 이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답이 나온다.

저자는 이들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은 열심히 한 뒤에 이루어진 열매라고 말한다.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이들을 명창, 명연주자, 명필가로 만들었지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 안에 살아 있는 열정을 쏟았을 때, 운이 따라왔고 기회가 주어졌으며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삶이 변했다고.

재능이나 여건보다는 삶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옛사람들의 꿈은 스토리를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열정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김홍도의 <운상선선도>. 김홍도의 운상선선도는 피리소리가 들렸다는 신선의 행차 모습을 그린 것이다. 동자가 대금을 불며 앞장서고 있다.

### 네티즌 강추

"진정한 배움은 자비라네" 가르침 따라 수행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낸 20년 청정 지음, 지영사  
'오즘은 진정한 수행자가 없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진정한 수행자가 있는가에 의문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분명 진정한 길을 걷게 가는 사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뻐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치우친 나의 생각도 부끄럽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달라이 라마에게서 20년 동안 가르침을 배우면서 수행자로서의 길을 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재미가 크다. 진정한 배움은 자비라고 말하고 그 자비를 라达克지역의 의료봉사를 통해서 실천하는 수행자. 그 척박한 삶을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니 세상에 이런 곳도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누군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진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직접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수행자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indo2195, kyobobook.co.kr/booklog/myBooklog.laf?memid=indo2195)



음악과 문학과 삶을 넘나드는 황홀한 즐거움

비흐를 좋아하세요? 송영 지음, 바움

음악과 문학과 삶을 넘나드는 황홀한 즐거움을 주는 소설가 송영의 음악 에세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여러 매체에 연주회와 연주자에 대한 감상을 펴려왔다.

또 음향기에 대한 평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악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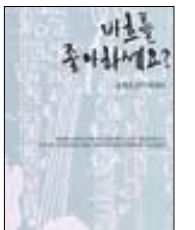
그래서 저자의 이 책은 자신이 직접 체득한 고전문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음악이 삶에, 삶이 음악에 영향을 주고 받는 방법도 명쾌하게 들려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 책을 보며 음악을 들으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클래식을 들으며 읽으면 좋을 책이다.

곁들여서 클래식 음악, 음악가, 작곡가에 대한 뒷얘기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줄 것 같다.

(suecream80, book.naver.com/bookdb)



### 색즉의 밑줄긋기

○...왜 태극권을 배우려 하나냐는 말에 현대인들은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심신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물과 권력을 얻는다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쉬울만 더할 뿐입니다. 사람은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없이 어떻게 애정의 향수에 젖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이(不二) 태극권 수련의 묘미는 건강과 철학, 그리고 명상을 함께 얻는다는데 있습니다. 서양에서 전해온 스포츠가 주로 신체의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심신의 건강을 돕는 운동법이라면, 동양에서 만들어진 요가나 선은 우리에게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내면의 무한한 세계에 노니는 명상의 맛 또한 함께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태극권 수련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건강과 명상도 없고, 우주의 이치를 체득할 수 있는 철학의 안목도 함께 얻는데 있습니다. 태극권 수련은 동공(動功)과 정공(靜功), 오도(悟道)로 구성돼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천인합일의 선경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이태극권> 본문 8쪽에서, 정암 지음, 하늘북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 알기쉬운 佛敎 儀式

##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의식집을 펴면 편 편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명칭의식
- 제8장 제불보살
- 제9장 파불의식
- 제10장 점안편
- 제11장 이운편
- 제12장 수계편
- 제13장 고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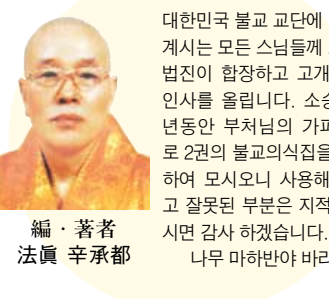
### 알기쉬운 齋禮 儀範

##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시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節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아 말로 함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입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지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매장
- 제5장 매장
- 제6장 매장
- 제7장 매장
- 제8장 매장
- 제9장 매장
- 제10장 매장
- 제11장 매장
- 제12장 매장
- 제13장 매장
- 제14장 매장
- 제15장 매장
- 제16장 매장
- 제17장 매장
- 제18장 매장
- 제19장 매장
- 제20장 매장
- 제21장 매장
- 제22장 매장
- 제23장 매장
- 제24장 매장
- 제25장 매장
- 제26장 매장
- 제27장 매장
- 제28장 매장
- 제29장 매장
- 제30장 매장
- 제31장 매장
- 제32장 매장
- 제33장 매장
- 제34장 매장
- 제35장 매장
- 제36장 매장
- 제37장 매장
- 제38장 매장
- 제39장 매장
- 제40장 매장
- 제41장 매장
- 제42장 매장
- 제43장 매장
- 제44장 매장
- 제45장 매장
- 제46장 매장
- 제47장 매장
- 제48장 매장
- 제49장 매장
- 제50장 매장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F:017-361-1131 ☎ 043) 264-3008, H.F: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